

고수익 미끼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구속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시세 차익 보장 유도
피해자 수백여명, 피해금액 22억 상당 추정

공현철 기자 hc0029@sjbnews.com

사건 돋보기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연동해서 수익 창출하는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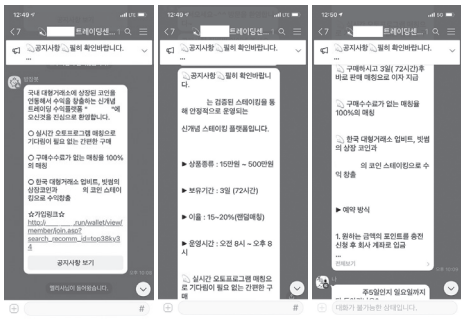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5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중인 2명을 인터넷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6,000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파는데 투자하면 3일만에 15~2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국내 코인가격과 해외 코인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SNS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홍보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서울 강남에 사무실까지 운영했다. 초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수익 명목으로 또다른 피해자들에



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주부, 직장인, 노인 등으로 대부분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투자금 대부분은 태국에 있는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8명이지만, 총 피해자는 470여 명, 잠정적인

피해금액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총책으로 보이는 50대 B씨를 추적하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해외 사이트를 운영하고 서버를 관리한 30대 C씨에 대해서도 인터넷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 사이트만 활용하는 투자사기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고수익 투자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청, 횡경도 정화활동

전북환경청은 27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군산 횡경도에서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청 직원 10여명이 해안가에 버려진 페어구와 각종 쓰레기 등 30여마대를 수거해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또 지역 어민과 낚시객 대상으로 횡경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쓰레기 투기행위를 금지하는 계도활동도 실시했다.

/공현철 기자

다음달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키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가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한다.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64명과 산불전문진화대 65명, 산불기계화진화대 18명 등 산불감시 근로자 147명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 배치된다. 산불 진화차량 5대와 드론 6대 등 39종, 4055가지 진화장비도 갖춰진다.

시는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GPS 단말기를 활용해 산불감시에 나서는 한편 전북도청 산림부서와 공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공중진화용 헬기 9대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올해 가을이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단풍철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관리 중심의 예방·대응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북정권 기자

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개인 이익 없는 점 등 원심 무거워” 집행유예→벌금

수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각자 지급돼야하지만 이를 피고인이 관리한 부분에서는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랫동안 유지된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북대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에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유튜브 ‘찌니트립’ 삼천1동 어르신께 보청기 지원

유튜브 ‘찌니트립’이 26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청기를 지원했다.

/북정권 기자

김제서 승합차-승용차 충돌... 8명 사상

군산서 1톤 트럭 운전자 사망

27일 오전 5시5분께 김제시 백구면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벤츠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있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승합차가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진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트럭 운전자 A씨(69)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공현철 기자

필리핀서 검거한 59억원대 보이스포싱 총책 송환

59억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조직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를 필리핀으로부터 넘겨받아 구속했다.

그는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2016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58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개인정

보와 계좌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주민과의 소송 등의 문제로 수년간 한국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최근야 인계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직 불발하지 않은 조직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전북 한 교육지원청 직원 5억 횡령 의혹

교육지원청 직원이 수익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 A씨가公款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감사과가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현철 기자

스포츠와 문화가 만나는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

‘태권도원’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는 공익광고입니다.